

# 구례중 “나는 나를 이해하고 나는 나를 키웁니다”

### 1학년 대상 실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 체험

### 가족공예 · 고추장 만들기 · 청년농업경영인과 대화 등

구례중학교(교장 장이석)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나는 나를 이해하고 나는 나를 키웁니다'를 주제로 하는, 자유학년제 교과연계 진로체험활동을 1학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일은 가족공예, 트레이(tray, 널찍하고 반반한 표면을 가진 물건에 표현하기), 바리스타(barista, 전문적으로 커피를 만드는 사람), 세바시 강의를, 21일은 청년농업경영인과의 대화, 고추장 만들기, 가족 필통 등을, 22일은 도마공예, 영화속 진로 탐색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족공예와 트레이는 지

역사회의 '아름다운공예사랑', 바리스타는 '구례구대합실카페', 청년농업인과의 대화와 고추장만들기는 '지리산피아골식품', 목공예는 '나무숨공방' 등, 지역사회 명장사가 학생과 함께 하였다.

체험 참가 전에 한 학생은, "나는 나를 이해하고, 나는 나를 키웁니다."라며, "선생님은 항상, '꿈과 희망과 길은 나에게, 내 곁에, 내 고향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례는 '자연으로 가는 길', 즉 구례의 길, 구례의 진로는 자연이다 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한 학생은 "청년농업인과의 대화가 기다려져요. 농촌지원을 코드하는 신규직

업, 농촌경제를 이끄는 직업, 우리농업을 세계로 알리는 신규직업 등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내 고향 구례 산수유농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고, 지속발전해야 아니까요!"라고 자랑했다.

체험 후, 한 학생은, "스타강사가 가르쳐 주는 공부 잘하는 비법과 '누구나 하나쯤 잘하는 게 있다' 라는 영상을 통해서, 나를 더욱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라며, "나의 진로를 잘 가꾸기 위해, 기초·기본 학력을 더욱 튼튼히 키우겠습니다."라고 든든하게 말했다.

학교의 지도교사는, "삼진강과 지리산이 자리한 구례 지역사회에는 훌륭한 진로 체험 장소와 장소가 넘칩니다. 자연의 품안에서 꿈을 키우는 구례중학교는 행복한 학교입니다."라며, "구례가 학생을 키우고, 또한 우리 학생들이 구례를 키울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보성교육지원청 “이제 QR코드를 누르세요”

### 전남 22개 지역 가운데 처음 청사 전자출입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배남근)은 7월 20일부터 청사 출입 시 QR코드 인증 전자출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의

22개 지역 교육지원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클럽,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보성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행해 적극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결과, 수기로 작성했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기재된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등의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에 보성교육지원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사 출입자를 관리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전자출입을 시행하게 됐다.

청사 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출입구 앞에 설치된 열화상기기를 이용해 발열체크가 이뤄진다.

그리고 휴대폰 앱으로 QR코드를 발급 받고, 출입구에 설치된 전자출입명부용 태블릿 PC에 QR코드를 인식시켜 전자출입자관리명부를 인증하면 된다.

휴대폰을 이용한 QR코드 인증 절차가 어려운 경우는 수기로 장부에 기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 학교지원센터 업무지원 표준안 마련

### 전남교육청, 학교지원 범위·규모 구체적 안내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구축한 학교지원센터의 업무지원 표준안을 마련해 21일(화) 영상회의를 통해 안내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지원센터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도시형(4청), 도·농복합형(4청), 농촌형(7청), 도서·벽지형(7청)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계약제교원 채용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19가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서·벽지형의 지원 체감도가 높고, 도시형은 그 체감도가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고민이 컸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역 별로 존재하는 학교지원 편차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업무지원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 표준안은 생활안전팀과 학교지원팀으로 나뉘어 수행하는

학교지원 업무의 범위와 흐름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생활안전팀의 12가지 업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범위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교지원팀의 7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 없이 즉시 지원하되, 도시지역에 한해 일정 시기에 집중되는 방과후강사 선정 업무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학교지원센터 업무표준안은 학교로 안내돼 8월 1일부터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영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표준안을 안내받은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업무지원 표준안을 통해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역 간 편차가 최소화됨으로써 학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환 기자

## 광주동부교육청, ‘2020 학년도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

### 미취학 및 미인정결석 학생 파악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정비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중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를 22일 개최했다.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는 동부교육지원청의 내부위원 및 경찰서·구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외부위원 등 내·외부위원 16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관내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공유하고 아동학대의 근본적 예방 및 지원 방안, 미인정 대안 교육 시설 취학 관리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법정기구로 매년 협의회를 개최해 위기 학생들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최동림 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위기 아동의 안정된 취학은 한 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지 않으며 취학 전 단계에서부터 여러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